

장애인 성폭력 범죄, ‘끝까지 책임문다’

성범죄 법률 전면 개정
친고죄 조항 폐지

앞으로는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형법’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이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장애유무 및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

또 대한민국 형법 제정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

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했으며,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됐으며,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했으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및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사회복지시설 및 관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시행에 대한 홍보를 통해 성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해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체육은 ‘희망·사랑·건강’입니다



▲제7회 제주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경기 중 탁구경기에 참가한 한 장애인 선수가 스메싱을 날리고 있다.

제7회 제주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지난달 15일 한림체육관에서 도내 장애인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열렸다. 이틀간 제주시 서부지역 일원 15개 경기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장

아인생활체육대회에는 16대 종목에 장애인 765명, 비장애인 118명 등 1354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사회복지 분야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 ‘쑥쑥’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 이용률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민간영역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에 대한 참여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11년도엔 2명이 이용했으나, 지난해에는 16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10명이 이용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은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연속성 단절’ 등의 이유로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체인력은행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근무자 중개를 요청하면, 도는 등록된 인력풀에서 요구자격과 교통환경 등을 고려해 시설에 인력을 알선해주고, 시설에서는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한다.

도는 채용된 종사자에게 근무기간 중 매달 최대 1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대체인력으로 등록돼 있는 인원은 227명이며, 사회복지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 이외에도 사무나 급식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도 대체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아라복지관 수탁기관 협의회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1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의를 열어 기존 운영주체였던 협의회를 수탁기관으로 또다시 선정했다.

이로써 협의회는 오는 2013년 7월 10일부터 2016년 7월 9일까지 3년간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사랑나눔 푸드마켓 온정의 손길 크게 늘어
제주사회복지 1호 시설 탐방(5)
- 사회복지소식 4·5면
제4회 장애인 근로자 한마당 개최
제2회 농아인 문화페스티벌 ‘울림’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한국장애인재단 출판기념 세미나
- 기획 8면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3)

7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8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 애덕의 집	그룹홈·체험홈 실무담당자 1차 정기교육	그룹홈의 이해와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소개	3일 13:30~16:30 애덕의 집 다목적실/교육비 무료	724-8101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센터	2013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전시 및 설명회 개최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및 설명회	11일~12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다목적실, 보조공학센터 전시실	710-1200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정 방문교육	한국어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연중 수시 모집	712-1140
(사)제주복지포럼	내 안에 나를 찾아가는 여정	애니어그램 이론, 힘의 중심 행동양식 등	26~28일, 제주관광대 평생교육원/교육비 3만원	010-9390-5583
(사)제주여민회	천연염색 강사양성 교육프로그램 「감쪽 스케치」	감염색의 이해,감염색 실습, 쪽염색 실습 등	13~14일, 골드리네(한경면)/6일까지 선착순 30명, 수강료 27만원	756-726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홍보로 사회사업하기	소식지로 사회사업하기,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협의회 2층	702-3784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심화과정)	회의/토의/워크숍 프로세스 설계, 커뮤니케이션 등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협의회 2층	
	사례관리전문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사례관리 총론, 과정론, 사례적용 등	7월 22일~8월 2일까지 협의회 2층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온정의 손길 크게 늘어

전년 비해 58% 증가한 9200만원

제주시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후원의 손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5월말까지 9200만원의 후원물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말 5800만원에 비교해 58%인 3400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며, 푸드마켓

이용자도 늘어 지난해 297명보다 1193명 늘어난 3290명이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유통업체를 비롯해 기업과 기관, 개인 등의 후원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곡을 비롯해 각종 식재료와 부식, 간식류

등 다양한 생활물품을 무료로 가져올 수 있어 이용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기부식품을 제공하던 푸드마켓은 지난 3월부터 긴급지원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와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변경, 제공해 오고 있다.

민·관 힘 합쳐 소외계층 지원한다

화북·일도2동·조천읍,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주시는 3개 읍·면·동에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상시 보호할 수 있는 ‘행

복더하기 사례관리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더하기 사례관리사업은 화북동을 비롯해 일도2

동, 조천읍을 우선 선정했으며, 이 지역 복지위원협의체와 종합복지관, 보건소,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등 12개 민·관 기관이 모여 사례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월 1회 정기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가구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의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3~4개월 간 시범 운영을 한 후 26개 입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의 토대 위에서 빈곤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가구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단위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랑나눔 E-car’ 서비스, 지역 민원인에게 ‘인기’

관용 전기차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대륜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동장 오태욱)는 지난 2월부터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싶으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관용 전기자동차를 이용해 민원을 지원하는 ‘사랑나눔 E-car’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민원인의 이용신청이 접수되면 10분 내로 목적지에 도착해 동 주민센터 방문 및 민원처리를 도와주고, 안전한 귀가까지 지원한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80여 명의 민원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객의 90%



이상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로 ‘찾아가는 친절서비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륜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더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랑나눔 E-ca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이 서비스가 동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용자 애로사항 청취 및 처리 등 민생문제 해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대상 상해보험 접수

서귀포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관내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376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1년동안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다 지난 2006년부터 중증장애가 있는 이들 중 희망하는 사람 모두로 가입범위를 확대해 추진해오고 있다.

상해보험을 가입한 이들에게는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지난해 2명이 200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CCTV통해 악성 민원인 근절한다

제주시 읍·면·동 사회복지상담실에 CCTV설치

제주시는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26개 읍·면·동 사회복지상담실에 오는 9월까지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카메라, 녹화기, 모니터 등 CCTV 설치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초에는 시 분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 및 관리부서와 전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용전화기에 녹화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제주시는 “읍·면·동의 복지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폭언 및 폭행으로 신상위협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있어 예방차원에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기도 성남시 중구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생계비 지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휘두른

흥기에 찢려 손가락 2개가 잘리고, 얼굴에 8cm가량의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원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민원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발생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피해 사건이 총 140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자 대검찰청은 지난 6월 4일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거나 모욕 및 명예훼손, 기물파손 등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귀장북, 장애성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선정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장애성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

서귀포시 등록 장애인 중 성인 장애인의 비율은 97%인데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번 사업은 대상별, 권역별 거점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되며 크게 ▲인문교양 아카데미 ▲중증장애인자립역량 아카데미 ▲전문화 아카데미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총 4회기에 걸쳐

평생교육 아카데미 ‘마을에 희망의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대정, 서귀포 시내, 남원, 성산으로 권역을 구분해 집합형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임태봉 관장은 “이번 사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성인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6월 식품기탁자



▲안신희씨=채소 4kg ▲금강축산유통=육류 682kg ▲김치원=김치 40kg ▲동원F&B제주=냉장·냉동식품 1008개 ▲공동모금회지정기탁(김제농협)=쌀 5000kg ▲빵피아모=빵 126봉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385모, 콩물 80개 ▲이든이네=멸치 4.5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야채 52.5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150팩 ▲존샘봉사회=세탁세제 등 생필품 67개 ▲파리바게트동광조점=빵 164봉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460,000	45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1,035,000	1,035,000
복지사업후원	1,125,000	443,000
푸드마켓후원	2,750,000	970,25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를 시작합니다

(5)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 평안전문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1호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 1호 ‘평안전문요양원’

‘최고’라는 호칭보다 ‘함께’하는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지향하는 고객의 행복리더’라는 복지사명으로 지난 1989년 문을 연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국에서 6번째, 제주에선 처음으로 설립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배경은 초대 관장이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춘강의 이동한 이사장이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출발한 춘강장애인근로센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동한 이사장은 춘강장애인근로센터를 거점으로 제주도 내 거점 근로센터를 설립해 1천여 명의 장애인당사자들

진다. 문학동아리 20여 명의 회원 중 11명이 시인과 수필가로 등단할 정도로 도내에서 이미 중견클럽으로 성장했다. 윤보철 관장은 “평생을 ‘아무개 씨’나 ‘회원님’이라고 불리다 문학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이제는 시인, 수필가라는 호칭이 생겼다”며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없는데 이들 스스로 이를 찾아가고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윤관장은 “어떤 분은 소액의 강사료를 모아서 복지관 후원금을 내기도 해 감동을 준적이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추진 중인 자조모임은 ‘다문화 가정’에 초점을 맞췄다. 남편 등 장애가 있는 가정에 있는 이주여

198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첫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최고의 덕목은 ‘투명성’ … 자조모임 등 이용자 모임 활발

이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숙련도 등이 떨어지자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방안으로 장애인복지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도내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기도 하지만 최고 중 하나로도 손꼽힌다. 5년에 걸친 사회복지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

이에 대해 윤보철 관장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복지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옳은게 지켜오다 보니 부수적으로 얻은 결과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조모임도 눈에 띈다.

척수장애인의 모임인 곱솔회를 비롯해 뇌변장장애인의 모임인 담쟁이회, 여성장애인자조모임 길벗회, 어린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의 모임인 마미클럽 등 4개 자조모임과 소도리영상기자단 등 5개의 클럽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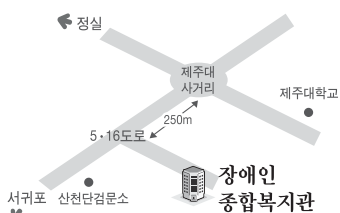
이중 문학동아리의 활약은 도드라

성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꾸리기 위한 동료 상담가를 양성 중이다.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청사진을 묻자 대뜸 “복지관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고의 미션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복지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고,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의 사명이라는 것.

윤관장은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직원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기관이 아닌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센터, 사랑방 역할을 하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의=702-0295



어르신 섬김을 최고의 중심 가치로 운영하는 시설



제주도 내 첫 번째 치매전문 요양 시설로 문을 연 평안전문요양원(원장 고치환)은 노인복지의 요람이자 전국 노인시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지난 1997년 서귀포시 토평동에 문을 연 평안전문요양원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집에서 생활하기 힘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무료로 돌보고 있다.

지금이야 존경받는 시설로 손꼽히지만 설립 초기만 하더라도 난관이 많았다.

마을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해 마을에서 최소한으로 떨어진 토평동에 시설을 설립하려고 제주도청에 방문하

건강보험공단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를 물으니 역시 ‘인식’의 문제를 꼽았다.

평안전문요양원 설립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용인원이 2명뿐이었다고.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마치 ‘고려장’ 하는 것처럼 생각해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인식이 변화하며 1년 만에 30~40명으로 늘었고, 이제는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이용인원이 늘어났다.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연계 및 노인복지시설 인

1997년 1월 서귀포시 토평동에 개원 2년 연속 최우수 시설로 선정

자 “200~300만 도시에서도 못했는데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우려를 표했고, 주변에서도 ‘서귀포는 인구가 8만도 안되는데 가능하겠냐’ 서부터 ‘사회복지 전공자도 아닌데 맡겨도 되겠냐’는 등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고치환 원장은 “일본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 ‘제주인으로서는 제주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노인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 치매나 중풍 어르신, 외상환자를 위한 시설이 전국에 5곳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요양원의 필요성을 느껴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비록 사회복지 전공자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3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반납하겠다고 타협을 봐 시작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평안전문요양원은 3년 안에 자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2011~2012년에 걸쳐 국민

식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진행하는 ▲가든파티 ▲평안장터 ▲미니올림픽 ▲작은음악회 등이 있다.

또한 어르신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고원장은 “케어는 기본이고, 특화한 프로그램을 통해 질높은 개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알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은 물론 여가시간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733-9005





제4회 장애인 근로자 한마당 개최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앞장선 사업체 등 표창패 수여

제4회 장애인 근로자 한마당이 지난 6월 19일 제주시 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장애인 근로자 200여명과 실무자 및 봉사자 등 총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박춘근 회장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사업체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 한마당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 장기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모범 근로사례를 발굴한 수기를 현장에서 발표했으며 레크레이션과 사물&비보이 공연 등을 즐겼다.

또 제주도 내 사업체 중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에 기여한 5개의 사업체에 표창패를 증정했으며, 5명의 모범 장애인 근로자를 선발, 표창장을 수여했다.

▲우수사업체 감사패 수여: 영농조합법인 산새미(대표이사 이정순), 어머니영농조합법인 어머니김치(대표이사 현복희), 제주글래스(주)(대표이사 이창희), 제주사랑농수산(대표이사 양경월), 한스패밀리



▲제4회 장애인 근로자 한마당에서 장애인 근로자·실무자·봉사자가 함께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모습.

리(대표이사 한광)

(제주사랑농수산), 부인숙(해성산업), 양철호(로얄호텔), 유병근(산새미)

▲모범근로자 표창 수여: 김경철(한스패밀리), 김현미

‘지역주민과 함께해요’

밀반찬 판매 전문점 ‘찬찬찬’



서귀포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 ‘찬찬찬 밀반찬 판매 전문점 (이하 찬찬찬)’은 서귀포시 서흥동 주민센터와 함께 지역 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찬찬찬은 지난 5월부터 서귀포시 서흥동 관내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5가구에 90만 원 상당의 밀반찬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가정 5가구에 월 3만원 상당의 반찬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매장에 방문해 직접 반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새터민봉사회와 업무협약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과 제주새터민봉사회는 지난 6월 1일 은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전문자원봉사단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등 20여개 대학생 봉사동아리 회장단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을 위한 2차 전문자원 봉사단 발대식에 앞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문 봉사활동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논의했다.

의료, 법률, 문화, 외국어, 전기, 보일러 등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공동체 구성을 위해 지난 2008년 구성된 봉사단은 올해 재능·재해 발생을 대비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식/마/당

순복음복지관, 28청춘합창단 운영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에서 운영 중인 ‘28청춘 합창단’이 눈길을 끈다.

60세 이상 여성으로 구성된 28청춘 합창단은 도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연말까지 운영된다.

합창단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활기찬 노년과 유익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보리수 봉사단, 여미지 식물원 나들이



보리수 봉사단(회장 고윤만)은 지난 달 8일 제주장애인 요양원 가족과 함께 여미지 식물원 나들이를 떠났다.

이날 비로인해 야외활동은 못했으나, 전 세계 다양한 식물을 감상하고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으며 보낸 시간은 모두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다.

옛골토성, 창암주간보호 식사 후원



옛골토성 신제주점(대표 하인숙)은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창암교육활동센터 이용 장애인 및 직원들에게 삼겹살 바비큐 정식을 후원했다.

이날 후원행사 덕분에 모두 웰빙의 맛을 만끽할 수 있었다.

옛골토성은 매년 1~2회 후원을 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제주에 빠지다’ 여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다문화 가정 10가족과 함께 서귀포시 성산을 일출랜드에서 ‘제주에 빠지다’ 3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월 주제는 ‘제주의 자연을 찾아서’다. 참가자들은 미천굴을 관람한 후 제주 현무암과 야생화 분재정원, 선인장 온실식물 등을 관람했으며, 가족끼리 직접 제작한 가족티셔츠를 만들어 만족도를 높였다.

아가의 집, 초이와 아쿠아플라넷 나들이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지난 달 2일 청소년 봉사단 초아(초처럼 세상을 밝히는 아이들)와 함께 아쿠아플라넷 희망나누기 나들이를 다녀왔다.

사단법인 동려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 대해 아가의 집 관계자는 “장애인 친구들이 비장애인 친구들과 어울려 나들이를 즐기며 서로간의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등 장애인 인식개선의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가톨릭주간보호, 작품전시회 참가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는 지난 6월 12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가 주최하는 2013년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에 참가했다.

서귀포시 88올림픽국민기념 생활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내 21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참가해 예능과 작품전시로 저마다의 열정과 재능을 뽐냈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제2회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울림’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부대행사 ‘눈길’



▲제2회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울림’ 2부에 참가한 단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춘근)는 지난달 22일 제주지역 농아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 제주, 수화에 빠지

다’라는 주제로 제2회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울림’을 개최했다.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6·3 농아

인의 날’ 제정을 기념하고, 농아인들의 자존감과 도민으로서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춘근 협회장은 “오늘만큼은 농아인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뚝 서서 지역사회를 움직이며 가꾸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2부 순서는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청각장애로 인해 겪는 고통을 담은 팬터마임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수화배우기, 농아인과 수화통역사의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그룹홈 담당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실시

제주 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도내 처음으로 그룹홈·체험홈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7월 1차교육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총 9회기에 걸쳐 그룹홈·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행정 실무

교육과 인권교육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다양한 자활서비스 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그룹홈·체험홈 담당 실무자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문의=제주 애덕의집 (724 -8101~2)

초등학생 위탁아동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 진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지난달 8일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초등학생 위탁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 ‘경제야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경제교육을 위해 미래에셋생명 제주지점은 금융경제와 시장경제, 한국경제에 대한

지식습득을 돕고, 청소년의 올바른 용돈관리 계획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또 아동들이 직접 대형마트에 방문해 주어진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소비활동을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학대 예방 홍보 부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서 노인학대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인식개선 사진전시회를 비롯해 효도 서약서, 즉석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활동보조인 양성 기본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을 지난달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했다.

장애인복지 시책을 비롯해 장애유형별 특징 등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40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77명이 수료했다.

장애인부모자조모임, 아가의 집 견학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봉금) 장애인 부모자조모임은 지난 6월 14일 도내 장애인거주생활시설인 아가의 집과 혜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을 통해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자녀의 양육 및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편 부모자조모임은 격월로 진행되는 만남을 통해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 간의 상호교류 및 지원의 장을 마련해 정보공유와 결속력 강화, 동료상담, 멘토링, 스트레스 감소, 정서지지 등 부모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어울림 한마당’ 개최 한라적십자봉사회

한라적십자봉사회(문종철회장 외)는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영식) 어린이들과 ‘가죽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점심식사 제공, 다양한 선물 후원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협회장 이흥기)는 지난 6월 12일 서귀포시 88올림픽국민기념 생활관에서 도내 21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참가한 ‘2013년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사회공헌 기업 ‘서로좋은가게 제주점’ 오픈

사회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서로좋은가게 제주점(대표 김효철)이 지난 5월 3일 문을 열었다.

전국에서 10번째로 개점한 서로좋은가게 제주점은 제주이 어도지역자활센터가 설립과 운영을 맡았으며, 한일베라체 아파트 인근에 동지를 틀었다.

서로좋은가게 제주점은 텃밭교육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상록수’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관장 한도실)는 지난 6월 7일 여성장애인 자조모임인 ‘상록수’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상록수는 회원 간 재능공유 및 재능기부를 통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자조모임으로,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문의=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710-9866)

플로베, 이동카페 운영

제주 최초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인 플로베에서 이동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플로베 사랑나눔 이동카페’는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이수한 일배움터 이용 장애인들이 제주지역 내 행사에 참여해 핸드드립을 이용한 맛있는 커피를 나누고 있다.



문의=플로베 사랑나눔 이동카페 (710-9866)

칼럼

사람의 향기는 말(言)의 향기에서 나온다



김범훈

전 제주일보 논설실장

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두 토막을 소개해볼까 한다.

하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그의 왕사였던 무학대사와의 일화다.

사람마다 향기 제각각

어느 날 태조는 대사에게 진한 농을 하였다. “내 눈에 대사님은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늙고 못생긴 돼지요” 태조의 얘기를 들던 대사는 껄껄 웃으며 응수하였다. “소승의 눈에 폐하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기분 좋게 들은 태조는 그 연유를 물었다. 대사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무학대사의 말은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명언으로 자주 회자된다.

다른 하나는, 중년의 남성과 여인숙 여주인과의 일화다.

옷을 말쑥하게 차려 입은 남성이 여인숙에 들었다. 남성의 눈에 여인숙은 입구부터 지저분하게 보였다.

그래도 묵고 가야하기에 여주인에게 빈정대듯 물었다. “여기 돼지우리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얼마요?” 여주인은 한동안이나 남성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분을 삭이었는데 차분하게 답했다. “한 마리면 1만원, 두 마리면 2만원 되겠습니다” 중년의 남성은 영락없이 돼지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보통명사로 향기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향수는 꽃, 향,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를 말한다.

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실체는 꽃향기다.

이해인 수녀님은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란 시에서 <어느 땀 바로 가까이 피어 있는 꽃들/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데/ 이쪽에서 먼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들은 자주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 오곤 합니다.>며 꽃향기를 예찬한다. 꽃향기의 고귀함과 새로움은 여운이 감돌아야 제 맛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향기가 있다.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긴다.

살아온 대로 사람의 향기는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올 터이다.

그러나 사람의 향기는 평생 고정적이지 않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꽃향기의 여운처럼 창조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창조하는 방법은 말과 글이다.

말은 사람 인격 담는 그릇

글은 말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결국 자신의 향기는 말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필자는 올해 1월 1일자 이 난을 통해 ‘삼사일언(三思一言)’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번을 신중히 생각하고, 한번 조심히 말한다’는 다짐은 빈말이었음을 고해한다.

불어 있는 게 입이라고 상대방을 적잖이 가슴 아프게 한 게 너무 회한스럽다. 말은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담은 그릇이라 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하며, 상대방을 우선 배려하는 삶의 기본을 다시 음미해 본다.

사람의 향기는 말의 향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기고

‘복권기금’ 또 하나의 나눔



김정미

노형동주민센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이 일종의 사행성 도박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복권기금이 복지사업에 재원으로 활용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복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 시초가 전 국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과 국가적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중 하

나로 예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인 경우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분과 소멸시효가 끝나 주인을 찾지 못한 당첨금 등이 더해져 연평균 1조원 규모의 복권기금이 조성된다고 한다. 복권기금사업은 국민주택기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재해재난 긴급구호, 보훈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제주도는 출산장려보육료 지원 사업, 기초노령연금지원, 저소득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803억67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많은 수혜자들이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어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복권기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와 수혜자들과의 소통 및 모니터링에 대한 플랜을 마련하

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형동주민센터는 내방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고령의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와 연계해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권기금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복권은 매주 몇 명의 당첨자에게 인생역전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그보다 수백만 배가 넘는 소외계층을 위해 쓰이고 그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된다.

이처럼 내가 산 복권 한 장이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복 터전을 마련해 사랑과 희망의 감동이 되고 있으며 복권기금은 또 하나의 나눔 활동이 돼 진정한 본질의 의미가 배가 될 것이다.

시론

세계의 보물섬!

시민 의식과 행동의 선진화 필요하다



변태엽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제주가 세계의 보물섬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이어 세계7대 자연경관, 그리고 람사르 습지와 세계 최초 람사르생태마을 지정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자연자원과 경관은 실로 세계 최고를 자랑할만하다.

여기에 제주의 돌담밭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또한 확실히되고 있어 제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제주는 우리나라 전국 대비 1% 규모에 지나지 않는 매우 작은 섬이다. 이를 지구적 차원으로 대비해 본다면 제주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을 정도다. 이랬던 jeju가 국제무대에서 통하게 된 것이다.

연 1000만 관광객중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여명이 제주를 찾고 있다. 제주를 찾는 크르즈도 지난해 80여회를 넘겼고, 올해도 6월 17일 현재 53회에 9만7831명이 제주 땅을 밟았다.

한번 무너진 신뢰 회복하기 힘들어

제주의 인구도 크게 늘어 오는 8월 60만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 대도시 등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제주로 몰리고 있다. 국제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불황 없는 지역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제주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는 일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한 관광객이 제주에 왔다가 동문시장에서 과일을 택배로 주문한 일이 있었는데 택배로 받은 감귤은 과일가게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불량감귤을 보내와 기분이 상한 것은 물론이고 환불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 사실을 제주시청 관련부서로 하소연한 일이 있었다. 내용을 접한 해당부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런 노력으로 불쾌감을 가졌던 관광객은 다시 한번 제주를 믿어보기로 했다는 사연이 있었다.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감을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뢰감을 쌓는 데는 60년이 걸리고,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60초도 걸리지 않는 말이 있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어느 한쪽에선 눈앞의 작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야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들이 제주를 가볼만한 관광지라 칭찬할 수 있을까?

선진관광지를 향한 노력은 공무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먼저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보여줄 외형의 자산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 자산이 빛을 발하고 제주를 찾은 손님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새겨지기까지는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역시 선진화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태도가 불쾌하고 무질서하고 도시가 더럽다고 느껴질 때 관광객들은 제주를 문화수준이 떨어진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곤 다시 제주를 찾지 않을 것이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는 제주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제주가 진정한 세계의 보물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애인재단 출판기념 세미나

현금 받아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달 25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기념 세미나를 열고 서적의 주요 이슈인 ‘서비스 현금 지급과 개인 예산 제도’에 따른 공론화와 새로운 관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번역 출판사업 기획총서 3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발간 개인 예산제도, 장애등급제 폐지 후 대체할 복지 시스템으로 부각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내년부터 개별 급여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장애등급제를 임기 내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기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개인예산제도’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출판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이 서적의 주요 이슈인 ‘서비스 현금 지급과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새로운 관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단체 힘으로 구축된 장애인 중심 제도

이 책에서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1993년 서비스

이용자 선택제도, 우리나라로는 바우처와 같은 방식을 도입했으나, 당사자 선택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장애인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996년 현금지급제도를 입법화했으며, 1997년 시행하게 됐다.

이 현금지급제도는 개인에게 제공하던 직접서비스 대신 이와 등등한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고, 수령자가 자신의 지원 설계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당시 영국 정부는 현금지급제도가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실제로는 전체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유는 현금지급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용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지방정부에 정산 보고하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 관계가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 책임이 부담되는 등

불편이 이어지자, 이용자 단체는 정부에 대해 ‘이용자 참여를 진작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시늉만 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등장한 것이 개인예산제도다. 이 제도는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 등을 위해 도입됐다고.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모든 지방정부에 도입했다.

김 교수는 “개인예산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로, 현금지급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탐색과 서비스 비용지출에 대한 정산,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브로커가 대신해 준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방정부에 고용돼 있거나 자신이 직접 선택한 브로커에게 서비스 이용 주문을 주면, 브로커가 적절한 서비스를 찾고,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등 번거로운 일을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현금지급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지정된 범위의 서비스에 국한하도

록 하고 있어 현금성이 근본적으로 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반면, 개인예산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와 제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관련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평생교육수강도 서비스로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득 교수는 “두 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지기도 하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별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장애유형의 특성과 개인 욕구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야 장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과 주도성 존중 세계적 흐름에 따라 선결 과제 많아

김 교수는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는 이용자 주도과 선택의 실현을 위한 첨단이고 대세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이런 전략은 이용자 선택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다른 요소에 대한 검토와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각기 다른 장점들의 균형과 장·단점의 조화를 강조했다.

먼저 제도는 이용자의 선택을 최고의 가치라고 할 때 효과성이 크다. 반면 현실적 서비스

를 이야기하면 열악한 제공기관의 경쟁이 전투적으로 변한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공공기관들 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살아남기 위해 종사자들의 최대한 착취하는 본능을 작동, 그들의 노동환경과 권리가 열악해진다는 데서 신중한 고민과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능력도 향상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 보편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자적 기준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야만 두 제도도입이 가능하다”며 “이때 서비스 진입 창구는 단일화돼 있어야 하고,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보급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국가적 기준 보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시사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점은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가 유행처럼 이야기되면서 흥내만 내다 논의를 끝내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선택과 주도성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보면 빠른 시간 내에 도입돼야 하지만, 그 전에 해결돼야 할 일이 많으며, 관점과 인식 등 체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웰페어뉴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3) - '제주해양경찰서를 찾아서'

제주해양경찰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몽생이 기자단이 이호해수욕장에 있는 해양경찰서 도두 출장소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함께 물놀이 안전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2013년 7월, 드디어 우리네 열정처럼 뜨거운 태양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글이글대는 태양이 작렬하는 7월이면 시원한 수박 한통 이고 파란 바다에 뛰어 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을텐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낸 해수욕장들은 우리에게 빨리 오라는 유혹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물놀이에 설레고 들뜬 마음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바다에 뛰어든다면 작은 사고에서부터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할텐데요, 이번달 몽생이 기자단에서는 제주해양경찰서와 함께 다가오는 7월, 즐겁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취재하여 보았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가까운 이호해수욕장에서 즐기는 해수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과 주의사항, 우리 몽생이 기자단과 제주해양경찰이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1. 물놀이를 하면 안될때는 언제인가요?

-식사후나, 음주 후, 햇볕이 강한 12시부터 2시 사이는 피하세요

2. 물놀이 전 반듯 해야할것은 무엇인가요?

-준비운동은 필수, 선크림을 바르고 여성의 경우 긴머리는 묶거나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3. 물놀이 전 준비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의 심장에서 먼 곳부터 손목과 발목, 팔꿈치, 어

깨와 목을, 무릎관절순으로 이완시킵니다.

4. 해파리에 물렸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미지근한 바닷물로 10분간 담그어 둡니다. 물, 알콜, 식초, 얼음찜질, 모래찜질은 절대 금물이에요.

5. 익수자를 보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구조 신고(112, 119) 후, 큰소리로 주의사람에게 알리고 주변 부유물을 찾아 익수자를 구조합니다. 익수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곤란 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실시하면 됩니다.

〈몽생이기자단〉

동영상 시청
QR코드 스캔 →



※ 이 영상물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람'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복지위원 활동 '눈에 띄네'

지역 복지자원과 소외계층 발굴 및 연계 등 활발한 활동 전개

미처 행정의 힘이 닿지않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읍면동 복지위원이 활동상이 활발하게 이뤄져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제주도 사회복지기본조례에 따라 도내 43개 읍·면·동에 지역주민과 복지기관 종사자,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348명을 복지위원으로 선정,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동안 복지위원협의체는 재능기부를 비롯해 음식, 현금기부 등 복지자원 51건을 발굴했으며, 기부협약 19건 체결, 복지소의 계층 상담 및 발굴 327건, 행정기관과 복지관, 모금회 및 복지자원 발굴 등과 연계한 실적 173건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애월읍의 경우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집 지어주기 행사'에 동참해 세탁기를 기증했으며, 한경면은 관내 영농조합과 협약

을 맺어 2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건강음료를 제공하기도.

추자면은 관내 대중목욕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약자를 위해 지역의 해군부대 협조를 얻어 매주 목요일 부대 내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진행했으며, 삼양동은 지역 내 식당과 협약을 체결해 매년 4회 이상 연 300여 명의 지역 노인과 아동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앞으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의 사례발표의 기회를 마련해 수범사례와 정보공유의 기회를 갖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의 노고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며, 우수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위원의 활동을 독려하고 자긍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부머봉사단을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베이비부머봉사단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베이비부머봉사단'을 모집한다.

베이비부머봉사단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봉사단이다. 봉사단으로 선정되면 봉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수봉사단체의 경우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5~63년생의 개인 또는 5인 이상 단체나 모임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공지사항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ejucody@gmail.com) 또는 팩스(702-3383)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베이비부머봉사단 주관처 (702-8823)

제주농협, 사회복지시설에 꽃 무료 분양

일일초 3만여 본

도내지역아동센터 등 무료분양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는 지난 6월 5일 제주시 도남동 소재 농협 꽃시범포장에서 농촌사랑 꽃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제주농협은 지난 3월 파종해 길러낸 '일일초' 3만여 본을 도내 지역아동센터 30곳과 사회복지시설 42곳에 무료로 분양했다.

제주농협의 꽃 분양사업은 농촌사랑 꽃을 활용한 노인 및 장애인 원예치료·도농교류 활성화 및 어린이들에게 농촌체



험학습 기회 제공·도서지역 농촌사랑 꽃동산 조성으로 농촌사랑 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꽃을 분양하고 있다.

제주농협은 3만본 중 제주특

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2만여 본을 분양하고 도내 각 초등학교와 팜스테이 마을에 6만 여본 등을 나눠줬다.

한사랑지역아동센터, 외국문화 체험

한사랑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미정)는 청수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매월 4주(토)에 KT 꿈꿈센터에서 랭프유스 제주 외국어 교육봉사단이 진행하는 1:1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활동은 거리체험 캠프와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